



KBS 2TV 오디션프로그램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가수'의 심사위원 배철수가 참가자의 무대를 심사하는 모습. 사진제공 | KBS

복고 키워드 '새가수' 안방 열풍 1970~1990년 명곡 소환 호평

현재 방송 중인 KBS 2TV 오디션프로그램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가수'(새가수)가 1970~1990년대 명곡들을 안방극장으로 '소환'하고 있다.

'새가수'는 과거 인기곡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부르는 싱어송라이터를 발굴하는 과정을 그린다. 복고 키워드를 내세워 서바이벌 오디션 포맷의 식사함을 덜어냈다. 송창식, 심수봉, 김현식, 이상은, 이적 등 '명장'의 노래가 미션곡으로 등장해 듣는 즐거움을 더한다.

참가자간의 치열한 경쟁은 최대 시청 포인트다. 가창력뿐 아니라 편곡 실력까지 갖춘 참가자들이 대거 출연했다. 19세 최연소 참가자 이나영, 1라운드 1위 박서린 등이 일찌감치 예비 스타로 주목됐다. 이들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배철수, 이승철, 김현철, 정재형, 거미 등 베테랑부터 마마무 솔라, 위너 강승윤 등 아이돌 멤버까지 다양한 가수들이 심사위원석을 채웠다.

최근 참가자들이 서로 콧바를 이뤄 팀 대결을 벌이는 2라운드도 한창 진행 중이다. 이번이 거듭되면서 경연의 재미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더 많은 시청자에게 선 보이기 위해 14일부터 목요일 오후 9시30분에서 토요일 밤 10시30분으로 시간을 옮겼다. 방송 길이도 110분으로 늘려 한 편의 공연 무대처럼 꾸민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영화 '싱크홀'서 월세 사는 김 대리 역할 맡은 이광수

“지하 짐벌세트 촬영땀 멀미약 먹고 액션신”

《땅이 흔들리는 듯한 효과 내는 세트》

월세 사는 대리 직급의 회사원은 누군가를 남몰래 짝사랑한다. 하지만 “집은커녕 차도 없다”며 한탄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연애와 결혼은 언감생심. 그런 평범한 소시민의 일상에도 희망이 찾아올까. 회사를 비롯한 이들은 어느 날 순식간에 지하 500m 깊이의 싱크홀 속으로 빠져들어 갇힌다. 어떻게든 이곳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온갖 애를 쓴다.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

11일 개봉하는 영화 '싱크홀'(감독 김지훈·제작 더타워픽처스)을 통해 배우 이광수(36)가 펼쳐내는 역할과 이야기이다. 11년 만에 어렵게 마련한 '내 집'이 싱크홀로 인해 무너져 내린 박 과장을 중심으로 그의 직장동료들과 이웃주민들이 펼쳐는 탈출기이다. 이광수는 박 과장의 부하직원 김 대리 역할을 맡아 예의 코믹한 속에 차승원·김성균 등과 함께 '웃픈' 현실을 말한다.

영화 개봉에 앞서 9일 온라인 화상으로 만난 이광수는 “싱크홀을 소재로 한 영화를 본 적이 없다. 또 이런 신선한 소재의 영화가 언제 만들어질지 몰라 출연했다”면서 “초반에는 조금 알찼고 이기적인 캐릭터이지만 재난에 처해 점점 성장해가는 과정이 보였으면 했다”고 말했다.

-극중 캐릭터가 힘겨운 청춘을 상징하는 듯하다. 당신의 청춘 시절은 어땠을까.

“나름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많이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는 아니다. 무명시절도 길지 않았다. 데뷔 이전에 직업과 수입이 없던 시기도 있었지만,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할 정도가 아니다.”

-극중 지하 500m 속에 갇혀 위험에 빠진다. 일정한 액션연기도 필요했다.(영화는 싱크홀의 재난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대형 세트와 컴퓨터그래픽 등 특수효과로 실감나는 장면을 연출했다)

“짐벌 세트(물체가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마치 땅이 흔들리는 듯한 효과를 내는 세트) 위에서 촬영하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 멀미가 심했다. 다들 멀미약을 먹어가며 촬영했다. 또 먼지와 진흙이 가득한 현장이었다. 샤워할 때 귀와 눈과 코와 입 등 온몸 구석구석에서 나올 정도였다. 하하!”

-그런 재난상황이 현실이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구조대를 믿고 기다리면서 뭘가를 하지 않고 그 안에 가만히 있을 것 같다. 위기상황을 능동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조금 침착함을 유지하려 한다.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는 편이다.”

-실제 성격도 그런가.

“‘런닝맨’ 속 이광수는 아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말이 없었다. 이런 얘길 하면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하며 말했다. 말(속도)도 느리고 대답도 짧았다. 실제로 날 만나 생각한 이미지와 많이 다르다며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고민과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다.”

-촬영장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않을 정도로 진지했다는데, “현장에서 휴대폰을 잘 보지 않긴 한다. 어쩌면 ‘런닝맨’에서 말도 많고 활동적인 모습이라 그에 비해 평소 잠시만 가만있어도 진지하다는 말을 듣는다. ‘싱크홀’ 김지훈

월세 사는 김 대리, 힘겨운 청춘을 대변 무명 겪었지만 난 힘들었다고 말은 못해 실제 재난상황선 구조대 믿고 기다릴 것



배우 이광수가 11일 개봉하는 영화 '싱크홀'을 통해 싱크홀에 빠진 재난 상황을 스크린에 펼친다. 영화에서 위험을 벗어나려고 고군분투하는 김 대리 캐릭터와는 달리 그는 '구조대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을 것 같다'고 고백해 웃음을 자아냈다. 사진제공 | 쇼박스

감독이 초반에 배우들에게 “광수가 휴대폰을 안 본다”며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고 했다. 이후 반강제적으로 휴대폰을 볼 수 없게 됐다. 첫 단추를 잘못 꿴다. 히하하!”

그의 말마따나, 사실 이광수에 대해 얘기할 때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을 빼놓을 수 없다. 201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꼬박 11년의 시간을 ‘런닝맨’과 함께 보냈다. 그만큼 오늘의 그를 있게 한, 매우 중요한 무대이다. 이광수라는 배우의 이미지에 코믹함을 더해주며 뚜렷한 개성을 드러낼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그 밖의 예능프로그램에서 이광수를 자주 볼 수 없었다. 어쩌면 ‘런닝맨’에서도 그는 연기를 펼친 것이라.

-김 대리 캐릭터가 ‘런닝맨’의 이광수와 겹쳐 보인다는 이야기도 많다.

“그런 우려는 ‘싱크홀’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겹치지 않도록 보이기 위해 노력한 건 없다. 연기할 때 ‘런닝맨’과는 또 다른 무언가를 추가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다. ‘런닝맨’으로 인해 이미지가 굳혀질 수도 있다고 주변에서 걱정도 해줬다. 하지만 그런 걸 걱정한다고 해서 시청자나 관객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다. ‘런닝맨’ 속 나도 나이기 때문에 기억해주는 것도 감사하다.”



영화 '싱크홀'의 장면들

-지난해 교통사고로 다리에 부상을 입고 휴유증 때문에 ‘런닝맨’에서 하차했다. 이후 달라진 것이 있을까.

“매주 월요일 녹화했다. 지금은 적응했지만, 하차 직후에는 월요일 침대에 누워 있는 내 모습이, 뭘할까, 약간 낯설었다?! 그런 느낌 이상이였다. 처음엔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가.

“다음달에 철심 제거 수술을 받는다. 재활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일상에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다.”

그는 평소 주변 동료들과 이런저런 우정을 이어왔다. 특히 조인성, 송중기, 박보검 등 배우들과도 절친하다. 마침 조인성이 주연한 ‘모가디슈’가 한창 상영 중이다. 어쩔 수 없이 선의의 흥행 경쟁을 펼치게 됐다.

“요즘 같은 시국에는 경쟁보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응원하고 파이팅 해야 하지 않을까. 인성이평과는 지금 이런 시기에 영화를 개봉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나눴다. 서로 힘을 내서 우리 모두 많은 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암보험 하나 있는데 뇌출혈도 걱정되고”

뇌출혈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2018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

“암치료비는 나오지만 생활비가 부족하고”

암 진단 후 실직 또는 휴직 46.8%
2013 국립암센터(국가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사망원인 2위 질병은 대비조치안했고”

대한민국 사망원인 2위 심장질환
2017 사망원인통계, 통계청(2018)

내 보험! 보장빈틈 걱정없이!

꼭 필요한 보장이 없어서 난감하다고 생각할 때, 이제 걱정 마세요
큰 병의 진단비도, 특약으로 생활비까지도 걱정없이!
원하는 보장만 골라보험 빈틈을 꼭꼭 채워드립니다

가입고객 전원, <AIA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상세 내용 별도 안내장 참고

무배당 **백세시대** (갱신형) **꼭하나건강보험**

노출혈 진단비	금성심근경색 진단비	암생활비 (특약)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나이가 많아도 (40~75세)	지병이 있어도	수술 병력이 있어도
------------	---------------	--------------	--------------------	----------------------------------	------------------------	------------	------------------

건강보험 꼭 하나
들어야 한다면 전화주세요

080-860-6700

• 가입 후 첫날부터 보장(가입 2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 진단금은 최초 1회) 단 암 특약은 가입 후 91일부터(소액암은 첫날부터) •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갱신 시 보험료 인상 될 수 있음) • 만기(환급)이 없는 순수보장보험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가족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 및 고연령자 대상 상품입니다 •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일반계약 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 가입 가능함 • 당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이츠 2in1 와이드그릴 상담원 시, 무료증정!
(이벤트 기간: 2020.12.01~2021.12.31)
• 전수 후 7일 이내, 최소 5만 이상 상품 구매(단, 무료 증정)
• 배송은 상담원료 후 약 2주 소요(인 1회 한정)
(당시 시안을 지참하여 전화로 교환 시 지급 제한)
• 본 상품은 소비자가 기존 3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 다른 경품으로 대체 발송될 수 있음